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베트남/하노이지사 작성)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- 베트남, 아프리카 돼지열병(ASF) 확산에 따른 베트남 국경 검역 강화 전망
- 베트남은 지난 2019년 홍옌성 및 타이빈성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가 발병한 이래, 올해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. 올해 ASF로 인한 피해 건수는 전국 44개 시, 576건이며, 폐사 또는 살처분된 돼지는 현재까지 24,218두에 이름.
 - 이에 따라, ‘23.11.16 베트남 정부는 각 부처에 ASF대응 지시사항 내용을 담고 있는 공보문(1097/CD-TTg)을 긴급 발행함.
 - ‘19년 베트남 농업·농촌개발부는 ASF가 확산되면서 폴란드, 헝가리와 같은 ASF발병국에 일시적으로 돼지고기 수입 금지를 통보하고,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했던 이력이 있음.

<1097/CD-TTg 공보문 요약>

내용

- 각 성의 인민위원회 및 농업농촌개발부 지휘 아래, ASF를 근절하기 위해 확진, 의심, 폐사한 돼지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적극 실행하고, 법 규정에 따라 피해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것
- 각 성 인민위원회 및 농업농촌개발부 지휘 아래, 각 유관기관은 전염 위험이 있는 증상의 돼지(구제역 증상, 귀의 청색 변색, 특히 ASF백신 접종 후 면역 기간이 끝났거나 곧 끝날 예정인 돼지, 돼지 사육 농장 내 전체 백신 접종률이 80%가 안 되는 경우) 해당 지역에 백신 접종센터 구축을 긴급히 검토할 것
- 각 성 인민위원회 및 농업농촌개발부 지휘 아래, 돼지 농가에 화학약품, 석회가루를 활용한 위생, 소독 방법을 안내할 것
- 농업농촌개발부 지휘 아래, 각 유관부서는 방역 연구,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교류, 협력할 것
- 정보통신부 지휘 아래, 각 언론기관은 ASF방역 관련 절차 안내 및 해결 방안 관련 내용의 선전을 강화할 것
- 상공부 지휘 아래,公安, 교통수사관, 수의기관은 협력하여 감염된 돼지를 운반, 거래, 폐사한 돼지를 유기하여 질병을 전파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단속할 것

□ 시사점

- 對베트남 한국산 육류 수출 품목은 닭고기가 유일함. 베트남은 돼지고기의 대체재로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, ASF의 확산으로 인해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 수입에 대한 위생·안전 및 검역 절차 등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어 對베트남 닭고기 수출 업체는 제품의 위생·안전에 신경 쓰며, 현지 관할기관의 동세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□ 출 처

- Cục Thú y nói gì khi ổ dịch tả lợn châu Phi liên tục gia tăng?, Thanh Niên, 24/11/2023
- 공보문 제1097/CD-TTg호 * 원문 별첨

□ 문의처

- aT 하노이지사 / 박태영 : +84 24-6282-2987